

창2:18-25

¹⁸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And Jehovah God said, It is not good that the man should be alone, I will make him a help as with him.* ¹⁹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And Jehovah God formed out of the ground every beast of the field, and every fowl of the heavens, and brought it to the man to see what he would call it; and whatsoever the man called every living soul, that was the name thereof* ²⁰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And the man gave names to every beast, and to the fowl of the heavens, and to every wild animal of the field; but for*

the man there was not found a help as with him. ²¹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And Jehovah God caused a deep sleep to fall upon the man, and he slept; and he took one of his ribs, and closed up the flesh in the place thereof.* ²²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And the rib which Jehovah God had taken from the man, he built into a woman, and brought her to the man.* ²³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And the man said, This now is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therefore she shall be called wife, because she was taken out of man [vir].* ²⁴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Therefore shall a man leave his father and his mother, and shall cleave unto his wife, and they shall be one flesh.* ²⁵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

‘태고교회 후손들의 기울어짐’

니하니라 *And they were both naked, the man and his wife, and were not ashamed.*

131 여기서부터는 태고교회의 후손 이야기로, 이들은 자신들의 오운³을 향해 기울어진 사람들입니다. *The posterity of the most ancient church, which inclined to their own,³ is here treated of*

※ ‘자신들의 오운을 향해 기울어진’(inclined to their own)이란 ‘자치권을 얻고자 분투한’(自治, 奮鬪, strove for autonomy), 즉 자기가 주인 노릇 하며 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는 말입니다.

※ ‘오운’(own, proprium)이란 ‘고유속성’, ‘고유본성’, ‘자아’, ‘자치성’, ‘...다움’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다움, 짐승다움, 꽃다움, 나무다움... 처럼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 타고나는 그 어떠함이 있는데 그걸 라틴어로 ‘프로프리움’이라 하며, 그에 가장 근접한 영어로는 바로 이 ‘오운’이 적당하지 않을까 스베덴보리 저술 초기 번역자들이 생각, 선택한 단어입니다.

※ 이 오운 역시 창조주의 손길 아래 있을 때 가장 찬란하게 아름답지만, 창조주 품을 떠나 독립하고자 하면 그때는 ‘뺨’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 창세기 2장 후반부 태고교회 후손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132 인간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만족하기보다 자기 자신과 세상, 혹은 자기 오운의 인도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허용된 오운을 여기서 다룹니다. (18절) *Since man is such as not to be content to be led by the Lord, but desires to be led also by himself and the world, or by his own, therefore the own which was granted him is here treated of (verse 18).*

※ ‘그런 인간에게 허용된 오운’(the own which was granted him)이란 ‘인류에게 양도하신 자치성’(the sense of autonomy yielded to humankind)을 말합니다.

※ 주님은 인간이 로봇처럼 조종되는 삶을 살거나 아주 작은 결정조차 스스로 하지 못하는 매우 유약한 존

재 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인간의 자치, 자율성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잘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주님을 ‘원해서 사랑하기’, ‘원해서 흔쾌히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를 의도하신 것입니다.

※ 다음은 천사들의 이노센스에 대한 글입니다. ‘천국과 지옥’(김은경역) 책, 278번 글에서 인용합니다.

...순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한 것도 제게서 나온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 근원을 주께 돌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

...그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받는 모든 것의 근원을 주께 돌리기 때문에 자기 본성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들이 자기 본성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만큼 주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신다...

...순진함이란, 어떤 선함도 그 근원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모두 주께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혜를 이루는 모든 선과 진리를 받는 근본이 된다...

※ 마치 둘째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할 때, 잠자코 나누어 주신 아버지처럼 주님은 인류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인도 대신 제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너, 어디 두고 보자’ 하시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 ‘돕는 배필’, 곧 주님으로 말미암은 오운, ‘뻘’로 표현하신, 인류의 타고난 보잘 것 없는 오운이 아닌, ‘살’로 표현하신, 주님의 생명을 지닌 오운을 준비, 인류를 돕게 하십니다.

※ 태고교회가 누렸던 퍼셉션이 그들의 후손으로 갈수록 그들 내면의 단힘으로 소멸, 인류와 주님 간 연결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조차도 주님은 그래도 인류가 여전히 주님과 연결되어 있게 하시려고 이번에는 퍼셉션을 대신할, 퍼셉션보다는 더 낮고 탁한 양심이라는 것과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The Word*)을 주시는데... 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창조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무한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먼저 선에 관한

‘태고교회 후손들의 기울어짐’

133 애정들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에 대해 알도록 하십니다. 이것들은 주님이 그에게 기부하신, 즉 보탬이 되라고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 오운을 향해 기울어집니다. (19-20절) *And first it is given him to know the affections of good and the knowledges of truth with which he is endowed by the Lord; but still he inclines to his own (verses 19 - 20).*

※ ‘선에 관한 애정들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the affections of good and the knowledges of truth)은 ‘긍정적인 느낌, 기분들과 참된 개념들’(the positive feelings and true concepts)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내적 의미이며,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모든 주님의 것을 가져와 경험하게 하셨고, 그는 실제로 그 모든 것을 경험하여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134 이런 이유로, 그는 자기 오운에 깊이 잠긴 상태

에 있게 되며, 어떤 오운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이 오운은 여자로부터 빚어진 갈빗대로 묘사되고 있는 그 오운입니다. (21-23절) *Wherefore he is let into a state of his own, and an own is given him, which is described by the rib built into a woman (verses 21 to 23).*

※ ‘자기 오운에 깊이 잠긴 상태에 있게 되며, 어떤 오운이 그에게 주어지는데’(let into a state of his own, and an own is given him)란 ‘자치 상태가 되어 자치성이 부여된’(brought into a state of self-governance and are granted a sense of autonomy)이라는 말입니다.

※ 천적 인간의 후손이 자기의 오운에 깊이 잠긴 상태, 자기의 오운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상태에 있게 되면, 그는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오운까지도 그 소유권이 다 자기에게 있는 줄 압니다.

※ ‘빠’는 생명 없는, 혹은 아주 조금밖에 없는 오운을, ‘살’은 생명, 곧 주님의 생명이 있는 풍성한 오운을 상징합니다.

‘태고교회 후손들의 기울어짐’

※ 그래서 주님, 누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나 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눅9:23)

여기 ‘자기를 부인함’이 바로 사람이 자기 오운, 자기 것이 아닌, 주님의 오운, 주님의 것을 바라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 다음은 영계에서 본 ‘사람의 오운’에 관한 스베덴보리의 간증입니다.

...사람의 오운은 악 그 자체이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은 악과 거짓 밖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이렇다는 것을 저는 다음과 같은 일로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요, 영들의 세계에서 사람의 오운에 관한 것들이 눈에 보이게 전시되었을 때, 오운 나름대로 차이는 좀 있었지만 그건 정말 어떤 말로도 묘사 불가할 만큼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시된 오운의 당사자가 자신의 오운을 보고는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로 충격을 받아 마치 악마로

부터 달아나듯 자신으로부터 달아나길 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을 받아온 사람의 오운과 관련된 것들은 주님의 천적인 것이 깃들 수 있는 생명마다 다양하게 정말이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실제로 체어리티의 삶에 헌신했거나 체어리티를 통해 생기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한 소년 소년처럼 보입니다. 별거벗은 유아들처럼 이노센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머리엔 왕관을 쓰고, 가슴은 화환으로 장식하며, 가장 내적 행복의 퍼셉션 가운데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아우라로 자랑스럽게 삽니다...

※ 본문의 ‘여자’는 아담이라 하는 천적 인간의 실제 갈빗대가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그의 오운을 말합니다.

※ 주님이 데려오신 이 여자로 인해 아담, 즉 속 사람의 상태가 바뀌며, 이 본문에 담긴 아케이나의 깊이는 천국 결혼, 곧 주님과 천국, 주님과 교회의 결혼에까지, 더 나아가 삼위 일체로까지 들어갑니다.

※ 다음은 태고교회 선조와 그 후손

창2:18-25, AC.131-136

‘태고교회 후손들의 기울어짐’

들의 차이에 관한 글입니다.

...천적 인간에게 있어서는 속 사람은 걸 사람과 구별, 확실히 구별되는데요, 실제로 천적 인간은 무엇이 속 사람에게 속하며, 무엇이 걸 사람에게 속하는지를, 그리고 걸 사람은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지 하는 걸 분명하게 지각합니다.

하지만 천적 인간의 이 후손들의 상태는 자신들의 오운, 즉 걸 사람에게 속한 오운을 구한 결과, 심하게 변질되어 더 이상 속 사람이 걸 사람과 구별된다는 것조차 지각 못 하며, 그저 속 사람은 걸 사람 같은 걸 껴야 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오운으로 이끌리게 되면 이런 종류의 지각, 곧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135 천적, 영적 생명은 인간의 오운과 아주 가까이, 마치 이들이 하나로 보일 정도로 붙어있습니다. (24절) *Celestial and s piritual life are adjoined to the man's own, so that they appear as a one (verse 24).*

※ 주님의 허락으로 천적 인간의 속

사람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즉 걸 사람과 함께 있게 되었는데, 같이 있는 그 둘의 모습이 마치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 천적 인간에게 있어 걸 사람의 부모는 속 사람입니다. 천적 인간은 걸 사람이 속 사람에게 순종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136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 노센스가 이 오운 안으로 스며드는데요, 이 이노센스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5절) *And innocence from the Lord is instilled into this own, so that it still might not be unacceptable (verse 25).*

※ 주님이 주시는 이 오운은 그러므로 주님의 자비요, 사랑입니다.